

불교문화재 역사 한눈에 2色 사진展



정해창작 근대서울의 모습.



이태한작 탐파.



이태한작 익산 왕궁리 탐.

렌즈에 담은 불교문화의 美

정해창 사진展 '벽의예찬...' 일민미술관에서 내년 2월 3일까지

지금처럼 비디오가 없었던 시대에 사진은 예술이자 하나의 역사다. 사진과 역사와 예술이 한데서 만나는 사진전 두 개가 열린다. 모두 빛바랜 흑백 사진이지만 단순한 감상 차원을 넘어 한국 불교문화재의 역사와 사진사를 연구해 볼 만한 작품이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민미술관에서 내년 2월 3일까지 열리는 정해창 탄생 100주년 기념 '벽의예찬, 근대인 정해창을 말한다'가 바로 그것이다. 정해창(1907~1968)은 불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이름이지만 범상치 않은 사진 작가이자 근대 전방위적 예인이었다. 1929년 국내 최초로 예술사진 개인전을 열었던 그는 그림과 전각을 했고 불교미술 연구에도 매진해 불교미술이론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1부에서는 1929년부터 1939년까지 그가 찍은 사진 500

여점 중 일부를 골라 소개한다. 그의 사진은 근대기록화유산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받는다. 그는 인물화, 풍속화, 산수화, 화조영모화 등 전통회화의 양식을 응용한 사진을 주로 찍었고 자신의 모습도 사진으로 남겼다. 그가 직접 인화한 빈티지 사진 120여점이 전시된다.

2부에서는 근대 전각의 양대 산맥이던 오세창과 김태석을 사사한 그가 1941년 화신백화점에서 '서도전각전'을 열면서 서예가와 전각가로 활동했던 시기의 작품들을 보여준다.

또 그가 1953~1957년 전국을 답사하면서 촬영한 불교미술 관련 사진 2483점이 수록된 불교미술사진집 5권도 국내 최초로 발굴해 소개한다. (02)2020-2055

이태한 사진展 '일어서는 침묵...' 김영섭사진화랑서 12월 11일까지

12월 11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김영섭 사진화랑에서 열리는 '일어서는 침묵-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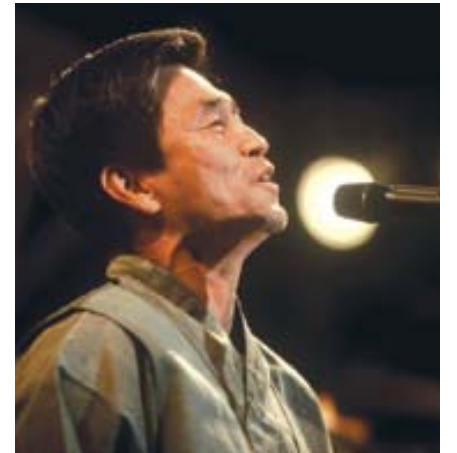
의 탐파'도 사진과 역사를 생각하게 하는 수작 30여 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15년 동안 탐 사자만 고집해 온 이태한 여주대 교수. 탐의 의미와 미학을 연구하기 위해 대학원에서 별도로 불교미술을 공부했을 정도다.

그는 탐을 클로즈업해 탐 자체에만 매달렸던 기존 사진작가들과 달리 사진에 과감하게 풍경과 자연을 끌어들이었다. 탐의 배경을 이루는 주변 풍경과의 조화는 화면을 흥미롭게 한다.

그 풍경 덕분에 탐의 역사도 함께 느껴진다. 익산 왕궁리 석탑(국보 제289호)을 찍은 사진을 보면 석탑 앞의 역사가 세월의 무게를 두런두런 얘기하는 것 같다. 그건 1000년 세월을 건너온 역사의 흔적이다. 그 흔적은 풍경과 어울리면서 회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예술의 경지로 올라섰다. 우리 전통 석탑과 그 주변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지게 하는 전시다. (02)733-6331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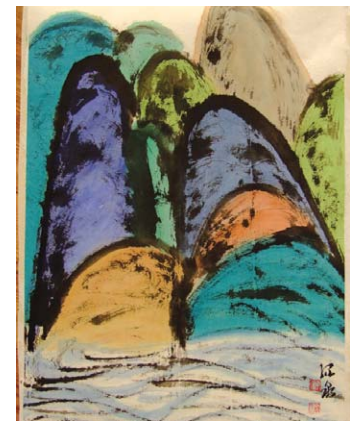
소리꾼 장사익 전국투어

우리시대의 소리꾼 장사익(사진)이 전국 투어에 나선다. 지난 6월 미국에서도 호평을 얻은 장사익의 '사람이 그리워서' 공연이 12월 4일 창원 성산아트센터에서 시작으로 안양문화예술회관(12월 14일), 김해 문화의전당(25일), 성남아트센터(29~30일) 등 네 곳에서 연이어 열린다.

'사람이 그리워서' 공연은 정겨운 시골장 풍경을 노래한 5집 음반의 타이틀곡인 '시골장' 중에 나왔던 가사 '사람이 그리워 시골장은 서터라'의 대목에서 착안한 공연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그의 대표곡 '질레꽃', '허허바다'와 5집 음반에 담긴 '시골장', '황혼길' 등이 음성공방 된다. (02)396-0514.

詩書로 떠나는 임자기행 ㉗



보리암-한려수도를 비단처럼 깔고 있는 금산 38경의 명승에 자리한 우리나라 3대 관음도량. 경내에는 원효가 쌓았다는 3층 석탑과 이층계가 머무르며 조선전국의 영원을 빌었다는 기도처가 곳곳에 보존되어 있다.

금산 보리암 -장인성 시인

참, 눈부시다
보리암 발 끝에 만발처럼 걸려있는
한려수도 한적락
눈이 부서 눈을 감고 바다를 내려본다.

바다위에 드리누운
보리암 삼십팔경,
불법(佛法)에 드는 길이
참, 눈부시다.

불자 산악음악인 신현대 솔로데뷔 20주년 기념공연

불자산악음악인으로 잘 알려진 가수 신현대(51)가 솔로 데뷔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한다.

신현대는 11월 29·30일 양일간 서울 안국동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신현대 산노래 콘서트'를 연다. 신현대는 가수로는 세계 최초로 마테호른과 돌로미테, 엘부르즈를 차례로 등장한 산악음악인으로 유명하며 지난 1988년 '난 바람년 눈물'로 데뷔해 '보고픈 그대 얼굴' '그래 있어' 등을 히트시켰다.

신현대는 이번 공연에서 '설악가' '아득가' '설악아 잘 있거라' 등 대표적인 산 노래들과 창작 산 노래인 '인수봉' '즐거운 산행길' '산행가'를 열창할 계획이다.

또 지난 5월 에베레스트 원정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오희준, 이현조희 등 산악인들을 추모하는 작은 무대도 마련된다. (02)2011-1994

탕카 속 '신비로운 여신들' 만난다

화정박물관 '티베트의 여성보살전' 내년 4월 27일까지



바스다라

등과 관련이 있다. 보통 티베트에는 백색과 녹색의 두 타라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백색타라를 선보인다.



백색타라

부와 재보(財寶)의 상징인 '바스다라' 여신도 벽에 걸린다. 대중적으로 널리 인기 있는 여신 '바스다라'는 티베트 사원

벽화와 스투파와 옆면 등에서 자주 목격된다. 이외에도 관음보살, 백면보살도 함께 전시된다.

'탕카'란 일반적으로 티베트의 불교회화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면직물에 광물성 안료와 금니(金泥, 금가루를 아교에 갠물감)로 그리는 탕카는 다른 아시아 불교 문화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티베트 특유의 불교미술이다. 탕카로 그려낸 티베트 불교의 다양한 소재와 독특한 채색기법은 세계적으로도 독창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 전시는 2007년 5월부터 2008년 10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세 차례의 연속된 탕카 특별전인 '탕카의 예술 Art of Thangka' 전의 두 번째 전시이다.

화정박물관 학예실 백은경씨는 "한국 불교미술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지만 티베트 불교미술에서 '여신'은 대중적이고 친숙한 주제이다"며 "이번 전시 기획을 통해 티베트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2075-0122

김주일 기자

머리에 쓱쓱!!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 교육을 배격하고,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초·중·고·대학생·일반 실무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자!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全套 9권 정가 90,000원 → 특가판매 60,000원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전화 02)737-0695 / 02)2004-8237
[입금계좌]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에이치비엘씨

- ◇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 ◇ 중창 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초·중·고·대학에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 ◇ 동아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문에 꼭 한행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 ◇ 중부매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 ◇ 이원종 전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 ◇ 김중호 전 내부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 법주사 도공 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